<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와 (나)는 시간적 속성에 주목하여 시적 대상을 의미화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구체적 이미지와 추상적 관념을 통합하는 방식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는 대상의 일시성에 주목하며 포착한 경험 세계를 비유와 묘사를 통해 그려 냄으로써 생명과 자연에 대한 내적 인식을, (나)는 대상의 영속성에 주목하며 인식한 관념적 세계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① (가)에서 꽃을 ‘구름’으로, 나무둥치를 ‘하늘의 기둥’으로 비유한 것을 통해, ‘때맞춰’ 꽃을 피워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내적 인식이 드러나는군.

② (가)에서 ‘분홍빛 더 실린’ 꽃의 모습과 ‘때맞춰 깬 벌’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그려 낸 것을 통해, 작은 생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군.

③ (나)에서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힘은 ‘크나큰’ ‘마음’으로 표현되며, ‘한 송이의 달래꽃’이 ‘피어나는 것’이라는 구체적 인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형상화되는군.

④ (가)에서 ‘살구꽃’이 ‘허옇게 매달’린 모습에 대한 지향은 ‘달포 뒤쯤’ 회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로, (나)에서 ‘수의’를 ‘벗고 싶은’ 소망은 ‘환히 트인 길’로 상징된 역사적 전망으로 이어지는군.

⑤ (가)에서 ‘꽃들의 생애가 좀 짧’아도 괜찮다는 것은 일시성에 주목하여 자연의 섭리를, (나)에서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은 영속성에 주목하여 ‘긴긴 역사’의 의미를 인식함을 보여 주는군.